발길 잇는 '김영랑 생가'

강진군 13일 학술 심포지엄…방문객 늘어

1930년대 문단활동을 전개했던 '시문학파 시인'의 문학사적 위상과 가치를 재조명하는 학술심포지엄이 강진에서 개최된다. 김영랑, 박용철로 대표되는 시문학파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김영랑 생가〈사진〉에도 방문객이 늘고 있다.

9일 강진군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후 3시 강진군시문학파기념관 세미나실에서 전국 대학 국문학과 교수 50여명이 참석해 '시문학파와 한국 지역문학'이란 주제로 한국지역문학회 창립 기념 학술심포지엄을 갖는다.

제주대 김동윤 교수의 사회로 막이 열리는 이날 학술심포지엄은 원광대 김정배 교수의 '김영랑의 시적 방언과 시적 효과 고찰'이란 주제 발표에 이어, 전주대 서덕민 교수의 '박용철 시 연구', 전남대 전동진 교수의 '김현구 시의 장소성과 문화사적 가치'란 논문이 각각 발표된다.

한편, 이날 창립 기념 학술심포지엄을 갖고 태동하는 '한국지역문학회'는 전남대를 비롯해 전북대, 경남대, 제주대 등 전국 대학 국문학과 교수 10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한 전국 단위 학술단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전남 지자체 '작은 마을 살리기' 고심

장흥군, 용산면 주민 공동참여 사업 추진

나주시, 장수마을 프로그램 3년째 운영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몸살을 겪고 있는 전남지역 시·군들이 귀농귀촌 마저 어려운 소규모 마을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은 외부기관의 마을지원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기존 주민들의 건강·장수를 위한 자체 프로그램도 가동하고 있다.

열악한 기반시설에 거주인구 대부분이 70대 이상 노인들인 이들 소규모 마을의 현 상태를 유지시키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장흥군은 9일 "용산면 어서·상발마을이 한국마사회(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주관 '2013 농어촌 마을주민 공동참여 사업' 공모에 선정돼 각각 1600만원, 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환경 개선, 교류 지원, 마을복지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154개 마을이 신청해 48개의 마을이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장흥에서만 2개 마을이 뽑혔다.

어서마을은 사계절 꽃피는 꽃길 조성, 문화와 이야기가 있는 벽화거리를 조성을, 상발마을은 마을안길 벽화 거리 조성, 마을회관 및 마을 안길 꽃길 조성을 제안한 바 있다.

나주시농업기술센터는 농촌노인들을 위해 지난 2011년도 다시면 신석2리 동뫼골을 시작으로 올해 세지면 성산리 덕산마을을 농촌건강장수마을로 선정했다〈사진〉. 이들 마을 노인들에 대해서 센터는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 정비, 소득 활동 등을 4개 영역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센터는 향후 이들 마을에서 수지침, 공예교실 등 노인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고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 주민 화합 및 치매예방에 힘쓸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들이 기존 사업들과 '판박이'로 추진되면서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각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공모사업이 천편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듯한 인상"이라며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나주=손영철기자 ycson@

나주시, 해외어학연수 설명회

초·중생 30명 15일~8월 10일 美 벨리대 연수

나주시는 9일 "오는 15일부터 8월 10일까지 4주 동안 미국 워싱턴주 웨네치시 벨리대학에서 해외어학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해외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나주시청 이화실에서 사전설명회도 가졌다.

이번 해외연수에 참가할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 10명, 중학교 2학년 20명 등 총 30명이다.

학생들은 영어 어학연수와 현장 학습, 문화체험 활동 등을 통해 영어문화의 현장을 직접 학습하게 된다. 지난 2011년부터 여름과 겨울방학기간 동안 영어 해외연수에 참가한 학생은 70명에 이르고 있다.

시는 또 중학교 3학년생 40명을 대상으로 전남 외국어고교에서 오는 22일부터 8월2일까지 10일간 '영어캠프'를, 동신대 언어교육원과 협력해 초등 5·6학년과 중학교 1·2학년 150명을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8월16일까지 3주 동안 기숙형프로그램을 각각 진행한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민박·펜션 화재예방 점검

담양소방서 25일까지

담양소방서는 8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여름철 휴가와 방학을 맞아 담양을 찾을 관광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민박과 펜션, 숙박시설 등 31개소에 대한 화재예방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담양소방서는 물놀이와 각종 레저활동, 소풍, MT 등 야외활동 증가와 국지성 폭우가 잇달아 안전사고 위험성이 더욱 높아져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 대형화재와 각종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기로 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jg@kwangju.co.kr

■ 새얼굴

"안전과 인권 책임지겠습니다"

박 지 영 담양경찰서장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치안활동을 강화하고 군민이 편안한 활기찬 담양경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박지영(50) 신임 담양경찰서장이 지난 8일 79대 담양경찰서장으로 취임해 업무를 시작했다.

해남 출신인 박 서장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완벽하게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치안 활동 강화를 위해 협력치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치안 현장의 자율과 책임을 보장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치안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서장은 광주 숭일고와 조선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간부후보 41기로 경찰에 입문했으며 경기청 감찰계장, 경기청 기획예산계장, 경찰청 교육과장을 역임했다. 동국대에서 경찰학 박사학위를 취득할 정도로 학구파인 박 서장은 가족으로 부인 정신정(43)씨와 슬하에 2남이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jg@

전북

부안군, 오늘 군청서 취업박람회

부안군은 1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군청 5층 중회의실에서 지역 내 10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2013년 하반기 부안군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구인·구직자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를 발굴, 군민의 구직 선택폭을 넓히고 정보를 공유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박람회에는 부안 제2농공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주)참프레를 비롯해 대명레저산업 변산지점, NH농협생명 변산수련원, 모항 해나루가족호텔 등 서비스·숙박업체가 참여한다.

또 삼해야마코(주), 도훈식품영농조합법인, (주)한국폴리우드, (유)세일양행, 부안수협 수산물가공공장, (주)원광바이오 등 제조업체도 구직자와의 만남을 갖는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실업계고등학교인 부안제일고와 부안여자상업고 재학생들이 단체로 참석해 취업체험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군은 올 상반기에도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150여명의 구직자들이 참여해 400여건의 개별기업 상담 등의 성과를 거뒀다.

/부안=장재용기자 jjy0681@

15개 유망기업 모여 80명 채용

내일 전주 테크노파크

전북도가 미래를 선도할 유망기업을 한데 모은 '미니박람회'를 연다.

도는 11일 오후 2시 전주시 팔복동 전북테크노파크 2층 대강당에서 도내 전략산업 선도기업 15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홍보, 면접, 채용에 이르는 원스톱(One-Stop) 맞춤형 공동 인력채용 행사를 연다.

이날 현장에서는 연구개발, 기술영업, 생산직, 관리직, 디자인개발 등 5~6개 분야에서 총 80여명을 선발한다.

대다수 업체는 당일 면접자리에서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kwangju.co.kr

정읍시, 투자위원회 발족

정읍시는 9일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를 발족하고 정읍시의회 의원,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투자유치 또는 관광사업 관련 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등 9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투자위원회는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국내·외 투자기업 및 관광사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 계획 수립·결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맡게 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수도권에서 지난 6월 정읍 제2산업단지로 이전한 (주)세창스틸에 대한 보조금(시비) 4억7500만원의 지원을 안건으로 상정, 심의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지리산 축제의 세계로 풍덩~

남원시, 7월 20일~8월 11일 물놀이·허브&블랙푸드 축제

남원시와 남원허브산업육성사업단이 오는 20일부터 8월11일까지 23일 동안 지리산 허브밸리에서 물놀이 축제와 허브&블랙푸드 축제를 동시에 개최한다.

허브밸리가 위치한 운봉지역의 기온은 시내권 보다 연중 2~3도가 낮아 피서지로 적격일 뿐만 아니라, 지리산 계곡에서 흐르는 맑고 풍부한 수량은 피서객들에게 만족감을 주기에 충분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물놀이장에는 중소형 에어바운스 수영장, 슬라이드, 물놀이시설 등이 설치했다.

또 물놀이 서바이블 게임이 마련돼 참가자들에게 소중한 추억의 장을 제공하고 서바이블 게임 달인에게는 인증서도 전달한다.

힐링캠프장에서는 캠핑체험, 힐링강좌, 농촌체험, 기체조, 명상, 자아찾기, 둘레길 걷기, 힐링콘서트 등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8월1일부터 5일까지 5일동안 '2013 허브&블랙푸드 축제'가 허브밸리 일원에서 열린다. '지리산 맑은 물, 상쾌한 허브향'을 주제로 열리는 올 축제는 그동안 지리산허브밸리 원형광장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행사를 지리산 자생식물환경공원으로 장소를 옮겨 밤 10시까지 계속된다.

주요 행사로는 지리산 허브음식 전국요리 경연대회, 허브스토리텔링 경연대회, 포도 품평회, 장기자랑, 꽃 돼지 잡기, 포도 빨리 먹기 등이 열린다.

특히 지난해 인기를 모았던 바비큐 경연대회에는 전국에서 50여 팀이 참가해 남원 흑돼지에 허브 향을 가미해 색다른 맛을 선사한다.

/남원=백선기자 bs8787@kwangju.co.kr

"맛으로 평가하세요"

순창군이 지난 8일 구림면 소득개발시험포에서 지역전략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순창블루베리 품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품평회 및 삼채시식회를 가졌다. 이날 품평회에는 결과 금과면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이정수 농가가 블루크롭 품종으로 1등의 영예를 차지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kwangju.co.kr

단신

남원시, 노인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남원시는 9일 오전 10시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노인회 읍면동 분회장, 경로당 회장, 지회 임직원 등 5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노인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노인지도자의 의식함양과 경로당운영 활성화, 노인복지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교육으로, 지회장 인사, 남원시장 축사, 남원시의회 의장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남원시는 어르신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는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남원=백선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 맞춤형 복지 올 9억원 투입

정읍시가 올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총 8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9일 "지난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유치, 전액 국비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취약계층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등 10개 사업을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매달 800명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8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부안군, 마실길 소재 음반 출시 기념 19일 시연회

부안군은 9일 "(사)변산마실길이 산과 들, 그리고 바다가 아름다운 부안마실길을 소재로 한 음반 출시를 기념해 오는 19일 오후 4시 변산 대명리조트 태평홀에서 시연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사)변산마실길은 그동안 박화실 작사가와 함께 마실길을 주제로 변산마실길, 변산아리랑, 마실길 추억 등 음반을 제작했다.

이번 음반 제작을 통해 도보여행 1번지로 급부상한 부안마실길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려 전국 제일의 명품길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안=장재용기자 jjy0681@

순창군, 기업인 초청 간담회

순창군은 지난 8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황숙주 군수 주재로 NH농협 순창군지부장, (주)한국씨엔티 이동호 공장장을 비롯한 관내기업인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인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여한 기업인들은 "인구 3만 회복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택난 해소에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며 "환경이나 불량식품 등을 단속할 때는 과태료 부과 위주의 단속보다는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사전예방 차원의 지도점검 활동을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kwangju.co.kr